작품 관람에 독서까지… 함평엑스포공원서 문화피서

군립미술관, 특별전·기획전 연중 운영…도서관, 3만4천여 도서 보유
야외 잔디밭·놀이터 등 방문객에 휴식 제공…체험 프로그램도 다채

"꽃과 나무가 가득한 공원 전시장에서 미술작품 관람하고, 도서관에 들러 사색을 즐기세요."

함평군이 여름 무더위를 피해 '뮤캉스(뮤지엄+바캉스)'와 '북캉스(책+바캉스)'를 즐길수 있는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011년 11월 개관한 함평군립미술관은 '함평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에 자리하고 있다.

함평군립미술관은 오는 7월 2일까지 함평군립미술관 기획전으로 '풍경과 감정이입' 전시회를 개최한다. 노은영, 박동근, 박인선, 윤준영 등 4명의 작가가 자연과 풍경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군 미술관은 또 지역축제와 연계한 특별전과 기획전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예술인과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있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함평 출신 오당 안동숙 작가 작품 170점과 미술품 수집가인 기산 안종일 선생의 기증작 135점, 안송 이태길 작품 51점, 백열 김영태 작품 48점 등 총 492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야외 공원에는 오당 안동숙 화백이 평생 수집한 희귀 수석과 괴석으로 조성한 수석공원이 있다.

엑스포공원 건너편 화양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함평군립도서관은 군민은 물론 인근 지역민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8년 문을 연 함평군립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종합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 강의실, 보존서고실, 정보검색실, 함평군 평생학습관 등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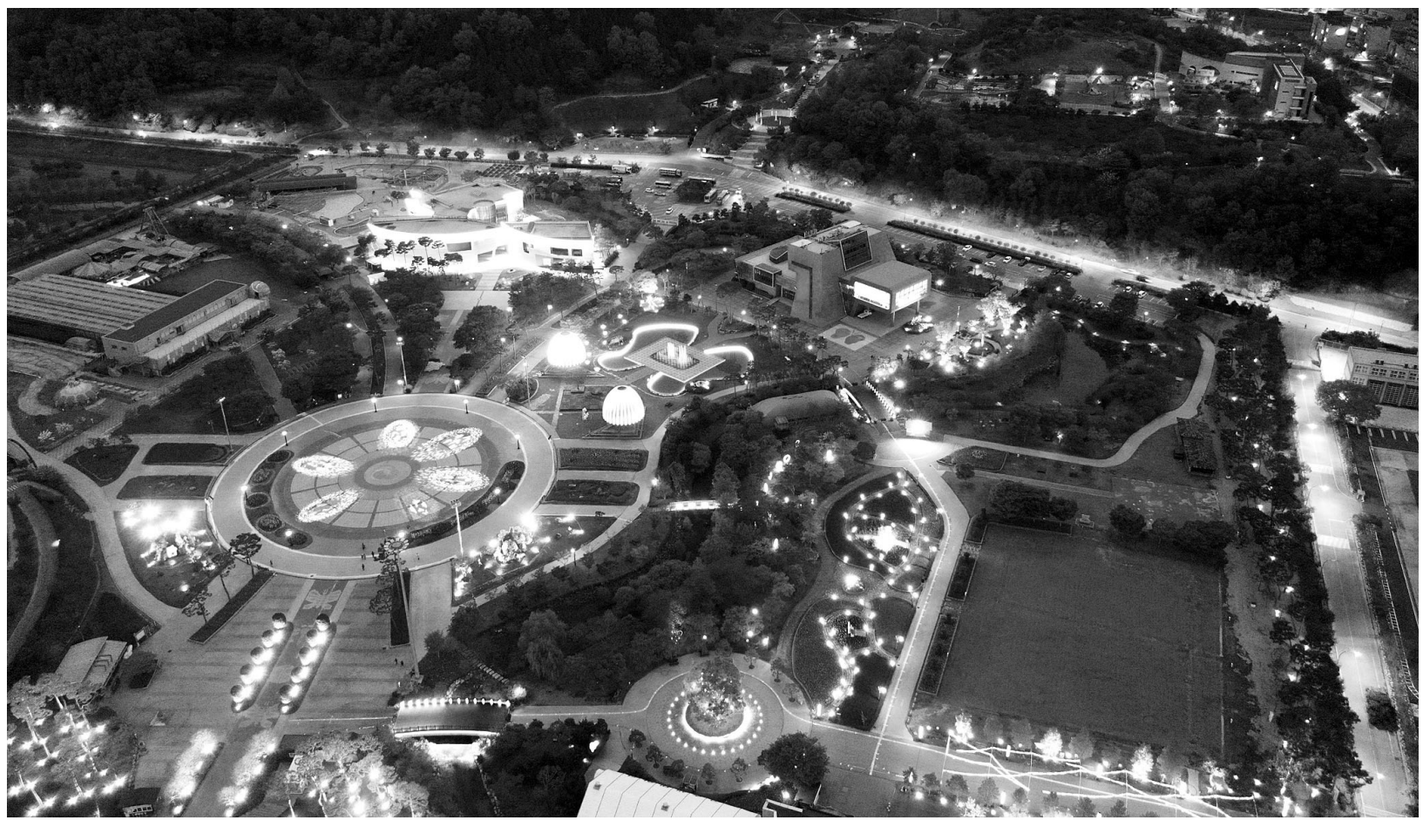
총 3만3647권의 도서와 전자책, DVD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도서관 야외에는 잔디밭, 야외의자, 놀이터 등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의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자연 속에 위치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사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이다.

함평군립도서관은 하절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자료실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무더운 여름, 전시를 관람하고 독서도 하시며 함평에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비 대축제가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 야경.

함평 '장기 방치 건축물' 10월 직권 철거

9월17일까지 원상복구 공고 미이행 시 행정집행

함평군이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직권철거)을 단행한다.

함평군은 돌머리해수욕장 일원에 장기간 방치돼 민원대상이었던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주와 시공사의 분쟁으로 지난 2011년 공사가 중단된 채 수년간(12년) 방치돼 있다. 여기에 제3자의 토지 경매 취득으로 각종 이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5월 건축물 철거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고 관련 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위원 전원의 철거 동의에 따라, 군은 철거 공고 후 오는 10월 중 행정대집행(직권철거)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인근에 돌머리해수욕장,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가 밀집해 있는 곳"이라며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미식관광 활성화해 500만명 유치"

TF 첫 회의…토요시장 먹거리 골목·한식 체험관 조성 등 논의

장흥군이 미식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500만명 달성을 추진한다.

장흥군은 최근 관광지 선택의 키워드로 '미식, 식도락, 맛집' 등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최근 첫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미식관광 관련 업무별 사업추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9개 부서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토요시장 먹거리 특화 골목 조성, 한식 체험관 조성, 장흥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장흥 맛집 육성, 장흥 특화표고빵 개발 등의 의견들이 논의됐다.

군은 맛 칼럼니스트, 유명 쉐프, 여행작가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미식관광 콘텐츠도 개발한다.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지역, 계절, 테마, 타켓별 미식투어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최근 미식관광에 대한 관심이 굉장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특산물 등과 연계한 상품 개발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UAE 왕실이 반한 '나주배' 두바이 간다

윤병태 시장, 100만 달러 수출협약
나주시 농산물 판로 개척단 성과

아랍에미리트(UAE) 왕실에서 맛을 인정받은 나주배가 조만간 두바이 수출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이 이끄는 'UAE 농산물 수출 개척 방문단'이 지난 14일 출국해 2박 4일 일정으로 현지에서 나주 농특산물 수출 판촉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방문단 활동 기간 윤 시장은 지난 15일 두바이 현지 한인 유통업체인 '1004 GOURMET'(천사마트)와 100만달러(12억8000만원) 규모의 농특산물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출방문단에는 나주배원예농협, 골든힐, 완도물산, 가보팜스 대표, 시의원, 나주시 유통행정팀 직원 등 11명이 함께 했다.

방문 기간 윤 시장은 첫 공식 일정으로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찾아 문병준 총영사관과 면담을 통해 지역 농산물 수출·판로 확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UAE와 절충교역 잔여 비용을 나주배(2000만원 어치)로 대신 지급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나주배를 전달 받은 UAE왕족은 맛에 반해 인근 오만 왕족에게 배를 선물했고 오만 왕족도 맛에 반해 추가 주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시장은 "민선 8기 고품질 나주배 생산·유통 비전을 선포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브랜드 과일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UAE왕실에서 명품 나주배를 맛볼 수 있도록 8월 조생종 배를 총영사관을 통해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다음 일정으로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두바이 해외지사에서 UAE 대형 유통업체인 '유니언쿱'(Union Coop) 구매 담당자, 바이어 등과 농산물 수출 판로 모색을 위한 상담회를 주재했다.

윤 시장은 김혁 aT두바이 지사장에게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할랄 축산품 수출을 위한 타 국가 사례, 할랄 인증 도축장 등의 설명 듣고 나주 한우와 연계한 중동시장 수출 방안을 논의했다.

윤 시장과 방문단은 aT가 지원·운영하는 한국산 신선 농식품 홍보관인 'K-Fresh zone'을 방문해 나주 농·특산물 현지 홍보와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관계자 협의도 진행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윤병태(오른쪽) 나주시장이 이끄는 'UAE농산물 수출 개척 방문단'이 지난 15일 UAE 현지에서 나주배 판촉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석달 휴관' 담양 담빛영화관 운영 재개

23일 무료 영화 상영 이벤트

담양의 작은영화관인 '담빛영화관'이 3개월간의 임시 휴관을 마치고 오는 24일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담빛영화관은 2021년 8월 군민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을 열었으며, 개관 이래 누적 3만 6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번 재개관으로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문화예술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개관을 손꼽아 기다렸을 군민들을 위해 재개관 하루 전인 23일 당일 무료 영화상영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료 영화 상영은 전화예매는 불가하며 선착순 현장발권으로만 관람할 수 있다. 상영시간과 상영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olcinema.co.kr)에서 확인하거나 영화관(061-382-0305)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다시 문을 연 담빛영화관이 군민에게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재개관하는 담양 담빛영화관.

담양군문화재단 임원 9명 공모

여성 30% 이상 선발…2년 임기

담양군문화재단이 제6대 이사회 구성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9명으로 재단 업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이사 7명과 재단 운영과 업무를 감사할 감사 2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양성참여 촉진을 위해 여성을 30% 이상 선발할 예정이다.

응모자격은 문화예술과 관광·교육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 활동 경력을 가진 사람,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력자, 관련분야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로 학력이나 전공분야 제한은 없다.

감사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한다.

재단은 지난 5월 제1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원후보자 모집을 위한 세부 요건을 정했다. 후보자 심사를 거쳐 모집인원 2배수 이상을 이사장에 추천하면 이사장이 최종 임명한다.

공모 지원서는 담양군문화재단과 담양군청,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는 7월4일부터 6일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담양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로 하면 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성 초보 귀농인에 희망 작목 교육

정착 장려금 등 지원책 다양

장성군이 귀농인 대상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호응을 얻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군농업기술센터가 운영중인 '성공 귀농 품목전수교육'〈사진〉은 신규 농업인, 초보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 생활에 필요한 실용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농업인이 재배 체험 희망 작목을 신청하면 군은 작목을 선정해 5회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는 딸기와 감, 블루베리 등이 교육 품목에 포함됐다.

초보 농업인이 희망 작목을 미리 길러볼 수 있어 품목 선택에 큰 도움이 되고, 재배 과정의 의문점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다.

군은 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연어 귀농인 정착장려금 등 분야별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장성으로 귀농한 지 5년 이내 귀농인은 자부담 포함 2000만원의 귀농인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한도로 농가주택 수리비도 보조해 준다. 장성군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살았거나 3년 이상 장성에 거주했다가 재전입한 지 7년 이내인 '연어 귀농인'에게는 농가당 500만원 정착장려금을 지급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